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료관¹⁾의 기록물 활용 방안 연구*

남 영 주**

I. 서론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혁신과 법률 제정 등의 다양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나라는 2016년 ICA(국제기록관리협회) 개최국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우리나라가 기록관리 분야에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인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록물들이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수집되어 아카이브화된 성과는 기록학 분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²⁾

민주화운동 관련 아카이브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향후 우리의 현대사를 서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기에 역사 교육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수집해야 할 가치가 있다. 또한 민주화운동 기록물 중에는 연행과 처형 및 고문 받은 자들에 대한 기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물들은 향후 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관련된 기록물들의 법적 가치 또한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민주화운동관련 기록물들은 ‘인권’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

* 투고일자 : 2015. 5. 12 심사일자 : 2015. 6. 10 게재확정일자 : 2015. 6. 19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1)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자료관인 ‘민주주의 아카이브’는 민주주의 사회연구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http://www.demopark.or.kr/main/sub_archive.asp)(검색일: 2015.05.10.)

2) 대표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2002년 1월 29일 출범한 후,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하여 현재 ‘민주화운동아카이브즈’를 운영하고 있다.(<http://db.kdemocracy.or.kr/>) 1994년 출범한 5·18기념재단은 ‘5·18기록관’을 통해 관련기록물들을 수집하고 있다.(<http://archives.518.org/>)

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권에 관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3년 10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세계인권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국가인권기구의 설치를 요청한 이후 2002년에서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인권은 1970년 이전에는 군부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피해로써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1970년대 이후로는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에 대한 인권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는 노동자 및 여성에 대한 인권, 2000년대에는 성적소수자 및 이주노동자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권단체가 생겼으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인권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 세계 인권단체 목록에도 우리나라 인권단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³⁾ 링크되어 있는 인권단체 중 유일하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의 자료관인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기록관을 구축하여 온라인상으로 기록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민주주의 아카이브는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들을 수집하는 메뉴스크립트 기록물관리 기관이다.

민주주의 아카이브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와 (사) 5·18기념재단 아카이브가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와 5·18기념재단 아카이브는 기록물 관리에 대한 운영기관의 노력과 기록학계의 학술적 연구 성과가 동반되어 아카이브의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아카이브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였다.⁴⁾ 이에 비해 민주주의 아카이브는 아카이브 발전을 위한 기관자체의 사업이나 학문적 연구 성과가 미미하다.⁵⁾ 그 결과 민주주의 아카이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나 5·18 기념재단 아카이브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이는 국고 지원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의 기록관리 역량이 미흡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의 관심

3) Human Rights Documents and Materials(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http://www1.umn.edu/humanrts/>;Korean Human Rights Links, <http://www1.umn.edu/humanrts/links/links.htm>(검색일: 2015. 04. 30)

4)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김은실,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문소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박경석, 『5·18 민주화운동 기록의 정보서비스 연구』(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수연, 『기록관간의 전거레코드 공동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중심으로』(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0)

5) ‘민주주의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부산민주주의 운동과정을 통해 살펴본 이명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과 지역문화: 부산민주공원의 조성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42(2004);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들을 중심으로』(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기록학적 입장에서 기록관 설립에 관해 연구한 정혜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료실의 기록관리 운영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신라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9)이 있다.

이 앞서 언급한 두 기록관에 쏠린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19 혁명이후부터 1980년대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화 발전에 끼친 영향력을 상기해 볼 때, 이와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보존하는 민주주의 아카이브에 대한 지원과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민주주의 아카이브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아카이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아카이브의 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용자들에게 기록정보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해보아야 한다. 기록물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에 있다. 오늘날 전자 기술의 발달은 이용자가 직접 아카이브를 방문하지 않아도 기록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아카이브를 구현하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소장 기록물을 온라인상에서 검색하고 열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의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아카이브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아카이브는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홈페이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⁶⁾ 이처럼 인터넷을 통한 기록정보 서비스는 오늘날 아카이브의 이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필자는 2012년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기록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을 통해 본 아카이브의 기록물 이용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고찰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5월 본 아카이브는 새롭게 생산된 자료들을 업데이트 하는 등 이용자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기록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나아가 본 아카이브를 활성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록정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6) 구성모, 『대학 인터넷 홍보 개선방안 연구-홈페이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40-42쪽.

II. 자료관의 소장 기록물 현황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기록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아카이브에서는 양서협동조합운동 관련 자료와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 및 사진 자료, 인혁당사건 관련 공판자료, 노동·학생운동 관련 공판자료, 이종률 유고 자료, 부산민족미술협의회 기증 자료, 한국민중미술 관련 자료, 노동자를 위한 연대 기증 자료 등 37,360건을 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자료관의 기록물 정리 정황을 기록물 유형별로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1>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유형별 정리자료7)

기록물 유형		내용
문서류	일반문서	부산양서관매이용협동조합 정관, 서울양서협동조합 정관 등
	재판문서	미정리
	리플렛 및 팜플렛	서울양협 안내 리플렛, 부산양서관매이용협동조합 발기 홍보 등
	소식지 및 회보	서울양협 양협소식, 부산양서관매이용협동조합 양서조합소식, 대구양서이용협동조합 달구벌 장간호 등
	성명서	미정리
	보고서 및 자료집	서울양협 창립총회 자료집, 서울양협 교육위원회 모임 보고서 등
	회의록	미정리
	논문	미정리
	기타	광주양협에서 서울양협으로 보낸 엽서, 서울양협 양서문학회 공개 초대의 글 등
도서간행물	단행본	부산민주운동사
	간행물	미정리
	신문 및 스크랩	매일경제신문 서울양서협동조합 발족 기사
영상음성류	영상물	미정리
	음성물	미정리
	기타	미정리
사진필름류	사진	미정리
	필름	미정리
	기타	미정리
박물관	그림	미정리
	판화	미정리
	포스터	부산양서협동조합 포스터
	조형물	미정리
	현수막	미정리
	섬유류	미정리
	기타	부산양서협동조합 홍보 책갈피

위 <표-1>와 같이 민주주의 아카이브에서 정리가 완료된 기록물들은 주로 양서협동조합운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 외 미정리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시급한 작업으로 파악된다.

특히 사진이나 영상 기록물은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다. 사진은 중요한 법정 증거물이 될 수 있다. 사진이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적 기능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에게

7) http://www.demopark.or.kr/Archive/dbCategory_01.asp?pcode=RN99577481(검색일:2015.04.10)

게 문자가 갖는 기능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신뢰감과 충격적인 반응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사진은 있는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⁸⁾ 사진은 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기계적 정확함으로 사실을 기록하는 특성으로 인해 증거나 신빙성으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으면서 기록의 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 사진은 사건의 권위 있는 목격자가 되었다. 기록사진은 사진가의 주제에 대한 시각이 뚜렷해야 하고, 시대적 인식에 근거해야 하며, 사진을 통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시킨 사진들은 사실을 기록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또 사진의 신빙성에 의해 법정에서 법적인 증거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⁹⁾ 대표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사진의 경우 1988년 국회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청문회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사진과 마찬가지로 영상기록 또한 현장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증거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영상기록들은 정부의 권력에 의해 가려지고 왜곡되었던 광주의 상황을 전달해주는 확실한 증거였다.¹⁰⁾

이처럼 사진과 영상류 기록물들은 사실 전달의 기능 뿐 아니라 법정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재판기록 및 영상음성류, 사진필름류, 박물류 등 미정리 기록물에 대한 자료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5년 5월 업데이트한 민주주의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주목할 만 한 점은 컬렉션으로 정리된 기록물 목록이 PDF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소장자료 컬렉션과 기록물 목록 제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한국기자협회 외, 『5·18특파원리포트』 (폴빛, 1997), 296쪽.

9) 임무택, 『광주 5·18 당시 기록된 사진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 사진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6쪽.

10) 홍성연, 『영상 역사 서술의 특성과 교육적 적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역사전공 석사학위논문, 2001), 18쪽.

〈표-2〉 민주주의 아카이브 소장자료 컬렉션¹¹⁾

컬렉션 구분	컬렉션 설명	건수	목록
양서협동조합운동 관련 자료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 양서협동조합운동 관련 자료	약 160건	PDF
미분류 기록물		약 15,000건	
민주화운동 관련도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도서	약 1,500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 자료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인화사진, 필름, 슬라이드, 액자, 디지털 사진 자료	약 2,500건	
이종률 유고 자료	산수이종률 유고 자료	약 100건	
부산민족미술협의회 기증 자료	부산민족미술협의회에서 기증한 부산지역 미술운동 관련 문서기록	약 200건	PDF
노동·학생운동 관련 공판자료	1980년대 후반~1990년대 부산지역 노동·학생운동 관련 공판기록	약 1,200건	
인혁당사건 관련 공판자료	민청학련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 관련 경찰·검찰·재판부 문서기록	약 1,800건	
한국민중미술 관련 자료	온다라 컬렉션, 부산민중미술 컬렉션 등 한국민중미술 관련 작품 및 문서기록(도서포함)	약 2,000건	PDF
1980년대 이전 민주화운동 관련자료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기록	약 2,000건	
노동자를 위한 연대 기증 자료	노동자를 위한 연대에서 기증한 부산지역 노동운동 관련 문서기록	약 2,400건	
운동부문별 자료	노동·청년·종교·정치·통일·환경·여성 ·인권·언론·문화·학술 등 관련 문서기록(도서포함)	약 8,500건	
합계	(2015년 5월 현재)	37,360건	

11) http://www.demopark.or.kr/Archive/archive_02.asp(검색일: 2015.04.10)

위 <표-2>는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중 정리가 완료된 대상을 중심으로 컬렉션화 한 것이다. 현재 본 아카이브의 기록물은 11개의 컬렉션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중 양서협동조합운동 관련 자료, 부산민족미술협의회 기증 자료, 한국민중미술 관련 자료 3개의 컬렉션만이 기록물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컬렉션을 중심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자료관의 기록물 정보서비스 운영 현황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기록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록정보 서비스 유형에 대해 먼저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AA: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의 용어사전(A Glossary of Archives and Records Terminology)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자가 찾는 정보와 더불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카탈로그나 색인을 통해 이용자의 이용을 유도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는 아카이브 소장물에 대한 정보 혹은 소장물로부터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카이브의 기능으로 보며, 소장물에 접근, 복사, 대출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를 돕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최근에는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 즉 이용자 프로그램까지도 기록정보서비스에 포함한다.¹⁴⁾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서비스와 이용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12) 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1046(검색일: 2015.04.10)

13) Maygene F. Daniels and Timothy Walch *A Modern Archives Reader: Basic Readings on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U.S.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1984), p.342.

14)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2005), p.24.

<표-3> 기록정보 서비스 항목¹⁵⁾

	정보서비스 항목	이용자 프로그램 항목
①	기록관에 관한 정보 제공	직원이나 이용자가 하는 강의
②	소장물에 관한 정보 제공	정보전문직을 위한 컨퍼런스
③	소장물에서 추출한 정보 제공	이용자를 위한 토론
④	저작권, 정보 공개 등 기타 관련법에 관한 정보 제공	특정 정보원을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
⑤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과 연구 절차 안내	공통적 질의를 위한 연구 전략을 요약해 놓은 가이드
⑥	소장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 제공	주제 서지류
⑦	소장물의 복제	연구방법에 관한 워크숍
⑧	소장물의 대출	워크숍
⑨		연구방법을 설명하는 비디오테이프나 슬라이드 쇼

위 <표-3>의 기록정보 서비스 항목 중 ①②③은 정보서비스와 관련 것으로 기록물에 대한 지적 접근요소이다. 여기에는 기록관소개, 검색도구, 색인, 기록물가이드, 목록, DB, 인벤토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④는 기록물에 대한 법적 접근요소로서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나 허가를 부여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Privacy Policy), 정보공개, 저작권(Copyright) 등이 제공될 수 있다. ⑤⑥⑦⑧은 기록물에 대한 물리적 접근요소이다. 기록물을 직접 검토할 기회를 의미하며 기록관 위치, 시간정보, 자료신청여부, 기록관 아키비스트정보, 질문하기, 이용규정¹⁶⁾ 등이 제공될 수 있다.

이용자 프로그램 중에서는 방송매체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신문, 라디오, TV, PC는 기록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¹⁷⁾ TV는 여타 미디어보다 메시지의 신뢰성이 높으며 영향력과 침투력의 차원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¹⁸⁾ 시청각 자료로는 영화, 필름, 슬라이드, CD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청각 자료는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적당하고 다른 매체로부터 얻은 정보보다 더 오래 정보를 기억시키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15) Mary Jo Pugh 저, 설문원 역, 『기록정보서비스』 (진리탐구, 2004), 24쪽, 100-105쪽.

16) Mary Jo Pugh 저, 설문원 역, 위의 책, 140쪽.

17) 김상호,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5-1(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482쪽.

18) 구성모, 『대학 인터넷 홍보 개선방안 연구-홈페이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언론홍보학과, 2003), 28-30쪽.

위 <표-3>의 이용자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 기존 기록관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첫째 ‘출판’이 있다. 기록관에서 출판하는 기록물의 종류는 기록관을 소개하는 소책자, 소장 기록물에 대한 안내서, 팸플릿, 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한 역사, 전시, 사료에 대한 연구서 등이 있다.¹⁹⁾ 출판은 대중에게 기록관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대량으로 배포하고, 특정 집단에게 기록관의 한정된 자료와 서비스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공급하기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²⁰⁾

둘째, ‘전시’가 있다. 전시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 문제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록물의 교육적 가치를 입증하는 최선의 수단이다.²¹⁾ 전시회는 기록관의 기능과 소장 기록물을 홍보하고, 기록관의 중요성 및 기록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기록관의 대중적 공개와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고, 자료의 이용 및 연구를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록물 소장자에게 기증의 동기를 부여하기도 한다.²²⁾

셋째, ‘교육’이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학부생의 이용을 돕는데 유용하다. 강의의 경우 소장 자료의 종류와 검색방법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고,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이 쉽게 기록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넷째, 각 종 ‘행사’들이 있다. 기념행사의 경우 기록관 설립기념행사나 기증자를 위한 기념행사를 들 수 있다. 기증자에게는 기증한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어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

다섯째, 학술연구(회의) 프로젝트이다. 기록관은 기록관의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집단이 자발적으로 공동관심사를 논의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를 갖도록 장려하고 시설이나 자료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²³⁾

여섯째, 뉴스레터가 있다.²⁴⁾ 기록관은 지역사회 및 외부 연구자들에게까지 어떠한 기록물이 수집되었는지, 어떠한 기록물이 정리되어 이용가능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행사가 개최되었는지, 어떠한 연구가 진행 중인지, 어떠한 강의를 있는지 등 기록관의 활용을 뉴스레터를 통해 알릴 수 있다.

본 고에서 고찰하고 있는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은 아래와 같다.

19) 양은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이용제공 전략 연구』(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4), 69쪽.

20) 김상호, 『기록보존론』(아세아문화사, 2000), 89-90쪽.

21) Gail Farr, *Archives & Manuscripts* (SAA, 1980), 7쪽.

22) 김상호,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474-475쪽.

23) 김상호, 위의 책, 473-474쪽.

24) Thomas Wilsted William Nilte, 이소연 역, 『기록관 경영』(2004), 153-154쪽, 참조.

〈표-4〉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기록정보 서비스 제공여부

기록관 소개	검색도구	색인	기록물 목록·DB	다른기록관으로 안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위치·시간	자료 신청	아키비스트 정보	질문하기	이용 규정	이용자프로그램
○	○	×	○	○	×	×	○	×	×	×	×	출판

위 <표-4>와 같이 민주주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는 기록관소개, 검색도구, 기록물 목록, 다른 기록으로 안내, 기록관의 위치와 시간에 불과하다. 또한 이용자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는 항목은 출판뿐이다.

민주주의 아카이브처럼 집합적 기억의 場으로서 단체의 기억, 개인의 기억, 공동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록관은 어떠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 기록관은 아래와 같다.

〈조사 대상 기록관〉

- ①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²⁵⁾
- ②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²⁶⁾
- ③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Hiroshima Peace Site-Hiroshima Peace Memorial Museum Website)²⁷⁾
- ④중국 난징 대학살 기념관(The memorial hall of the victims in Nanjing massacre by Japanese invaders)²⁸⁾
- ⑤베를린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²⁹⁾
- ⑥작센하우젠 포로수용소 기념관(Memorial and Museum Sachsenhausen-Brandenburg Memorials Foundation)³⁰⁾
- ⑦폴란드 아우슈비츠 기념관(Memorial and Museum AUSCHWITZ-BIRKENAU)³¹⁾
- ⑧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³²⁾
- ⑨5.18 기념재단 아카이브(5.18 기록관)³³⁾

25) <http://www.ushmm.org/> (검색일:2015.02.20)

26) www.yadvashem.org, (검색일:2015.02.20)

27) http://www.pcf.city.hiroshima.jp/index_e2.html (검색일:2015.03.20)

28) <http://www.nj1937.org/english/default.asp> (검색일:2015.03.20)

29) <http://www.jmberlin.de/main/EN/homepage-EN.php/> (검색일:2015.03.20)

30) <http://www.stiftung-bg.de/gums/en/index.htm> (검색일:2015.03.20)

31) <http://en.auschwitz.org/m/> (검색일:2015.03.20)

32) <http://archives.kdemo.or.kr/> (검색일:2015.03.20)

위 9개의 조사대상 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와 이용자프로그램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

<표-5> 조사대상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아카이브	기록관 소개	검색 도구	색인	기록물 목록·DB	다른 기록관으로 안내	개인 정보 보호	저작권	위치·시간	자료 신청	아키비스트 정보	질문하기	이용 규정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	○	○	○
⑥	○	×	×	○	○	×	×	○	○	×	○	○
⑦	○	○	×	○	○	×	○	○	○	○	○	○
⑧	○	○	×	○	○	○	○	○	○	○	○	○
⑨	○	○	×	○	○	○	○	○	○	×	○	○

<표-6> 조사대상 기록관의 이용자프로그램 제공 여부

아카이브	전시	출판	교육	이벤트	오리엔테이션	시청각	프로젝트	인턴쉽	뉴스레터	세미나	강의	연구
①	○	○	○	×	○	○	○	○	○	○	×	○
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④	○	×	×	×	×	×	×	×	○	×	×	×
⑤	○	○	○	○	×	○	×	×	○	×	×	×
⑥	○	×	○	○	×	×	×	×	○	×	×	○
⑦	○	○	○	×	×	×	○	○	○	×	○	×
⑧	○	○	○	×	×	○	○	×	○	○	○	○
⑨	○	○	○	×	×	×	×	×	○	○	○	○

위 <표-5> 조사대상 기록관의 정보서비스 제공 여부에 의하면, 조사대상 9개의 기록관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표-6> 조사대상 기록관의 이용자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각 기록관마다 모든 항목의 이용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시와 출판,

교육, 뉴스레터 서비스는 거의 모든 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반수 이상의 기록관에서는 시청각과 연구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표-6>과 같이 5·18 기록관의⑨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전시, 출판, 교육, 뉴스레터, 세미나, 강의, 연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9개의 주제기록관에서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록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개의 주제기록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 수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민주주의 아카이브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기록정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9개 조사대상 아카이브에서는 기록물에 대한 법적 접근요소인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항목, 그리고 기록물을 직접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 접근요소인 자료신청, 아키비스트 정보, 질문하기, 이용하기와 같은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본 아카이브에서는 이 두 요소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 이용자 프로그램의 경우 9개 아카이브에서는 전시, 교육, 출판, 시청각, 뉴스레터, 강의, 연구 등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었는데 비해 본 아카이브의 교육프로그램 또한 매우 미비하다.

IV. 자료관의 기록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결론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아카이브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 서비스는 조사 대상 9개 주제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에 비해 보충할 항목들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민주주의 아카이브에서는 기록물의 지적 접근요소인 기록관소개와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한 항목만 서비스하고 있다. 기록물의 정보서비스 관련 항목인 법적·물리적 요소를 확충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서비스 항목들은 기록관 운영 주체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기에 시급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용자들을 위해 아키비스트에 대한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오늘날 이용자들은 직접 기록관까지 않고도 기록물 정보와 기록물과 관련되는 기타 정보들을 인터넷을 통해 알고자 하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9개 기록관 중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의 사례가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아키비스트 별 역할과 연락처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료나 의문 사항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1〉 아키비스트 정보³⁴⁾

- : 사료관장
- : 사료수집
- : 구술사업
- : 사료 콘텐츠 개발, 유지
- : 1960년대 역사정리 사업, 구술관리·열람
- : 사료정리(등록)·DB구축, 폐기, 사료 보존
- : 사료관 온라인시스템 유지관리, 개선
- : 사료정리, 열람·견학·홍보, 대외협력

*○○○은 아키비스트(실명은 생략함)

민주주의 아카이브에서 가장 부족한 서비스 항목은 이용자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런데 본 아카이브는 이미 이용자 프로그램의 콘텐츠로 개발 내지 활용 가능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2009년 부산에서 개최된 부마항쟁 3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의 주제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이었다. 이 행사를 통해 양서조합에 대한 많은 자료들과 관심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³⁵⁾ 이듬해 광주 5·18기념문학관에서는 부마민주항쟁 31주년·5·18 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엄이 개최되었는데, 주제는 ‘양서협동조합의 지역적 전개’였다.³⁶⁾ 이러한 학술행사들을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하게 기획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의 일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아카이브에서는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을 통해 소장 기록물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민주화 콘텐츠’를 개발하였다.³⁷⁾ 교사와 학생을 주요 이용자로 설정하여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과정에 맞추어 역사수업 시간에 교사와 함께 학습하거나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사와 학생을 기록관의 이용자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콘텐츠는 2007년~2009년까지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전국역사교사모임에 소속된 역사교사와 함께 개발되어

34) <http://archives.kdemo.or.kr/Archives4> (검색일:2015.04.01)

35) http://www.sdpnet.org/index.php?document_srl=7260 (검색일:2015.04.01)

36) <http://www.green.ac.kr/xe/204123> (검색일:2015.04.11)

37) <http://archives.kdemo.or.kr/Contents> (검색일:2015.04.11)

2007년 전태일과 노동운동, 문익환과 통일운동을 시작으로 2008년 4·19혁명, 한일회담 반대운동, 유신반대 운동, 6월 민주항쟁이 제작되었고 2009년에는 반민특위,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항쟁, 전태일, 통일 주제가 새롭게 확장되었다.³⁸⁾ 2009년에는 모든 주제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각각의 개별 주제를 교과과정에 맞추어 세부 구성을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최종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또한 일부 콘텐츠는 5·18 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같이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었다.³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의 사료정보콘텐츠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료로 보는 부마항쟁>은 민주주의 아카이브가 독자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자료-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화면



위와 같이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학술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본 아카이브는 기존 협력기관들과의 사업을 통해 체득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용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민주주의기념사업회와 민주주의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연구소는 그간 개최했던 각종 행사들에 대한 소식을 아카이브에 적극 소개하여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 나아가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정보 콘텐츠 구축완료보고서』 (2009), 7쪽.

39) 차준호, 『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5-22쪽, 참조.

본 아카이브 연구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전시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기록물은 단연 사진 자료이다. 부산지역 6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에서는 『6월항쟁-사진자료집』(1995)을 출간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사진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확충하는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가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구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과거사 진상규명이 대두되면서 ‘기억’의 가치와 증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근대 역사학은 과거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추구했으며,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주재료를 문자기록에서 찾았다. 그러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자기록은 제한적이며, 대개가 국가·엘리트·승리자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문헌 중심의 역사학은 ‘위로부터’의 관점을 취하기 십상이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즉 민중을 배제하거나 혹은 대상화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헌자료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구술이다.⁴⁰⁾ 구술기록이 전적으로 구술자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법률적 가치를 가늠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문헌자료의 공백을 채워 주는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특히 구술은 인간의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재현되는 것이므로 구술자가 사망하게 되면 더 이상 구술기록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시성을 지닌다. 부산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증언자들의 연령이 높은 것을 감안해 볼 때 구술기록 작업은 빨리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동영상화해서 보존하는 작업까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공원에서는 『6월민주항쟁 증언록』(2007)등을 출판하였다. 이 자료는 본 아카이브가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구술아카이브에서는 ‘4월혁명구술아카이브즈’라는 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⁴¹⁾ 이 또한 본 아카이브가 구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40)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봄호, 통권 58호(2002), 365쪽.

41) http://oralhistory.kdemocracy.or.kr/servlet/com.avatar.mms.cybr.oral.OralViewCmd?pO_Id=97
(검색일:2015.03.01.)

<자료-3> 4월혁명구술아카이브⁴²⁾

로그인 | 민주화운동 아카이브즈 | 사진아카이브즈 | 시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 CONTACT US

소개 | 구술컬렉션 | 구술자 | 구술해제 | 알림방

4월혁명구술아카이브즈

이름을 누르시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이름은 등록됨 순서입니다.

이재현	양신하	양홍해	신수용	고시훈
이문교	서수현	박철동	정동채	윤승용
정상기	임재홍	최원각	최순권	이재환
위해룡	오영숙	오석보	북진봉	박홍률
류덕희	김영표	김달중/안병준	강재식	이병태
홍충식	김광순	김진배	김동정	김운용
홍영유	이문영	김운환	변형운	최서영
조종중	이명동	박용운	남재희	김진배

검색 상세검색

셋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이다. 앞서 조사한 9개의 주제기록관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 대상에 초점을 둔 교육프로그램은 미국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이 좋은 모델이다.⁴³⁾ 교육프로그램을 For Students, For Teachers, For University Faculty & Scholars, State Profiles, Plan a Group Visit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도 참고할 만하다. 홀로코스트의 가장 큰 피해자인 유대인의 경우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 민족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기념관에서는 ‘홀로코스트 연구를 위한 국제학교(The International School for Holocaust Studies)’⁴⁴⁾라는 교육연구기관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대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아픔과 상처에 대한 교육을 전 세계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에서 주목할 만한 서비스 사항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기록물에 대한 선별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Educational

42) <http://oralhistory.kdemocracy.or.kr/servlet/com.avatar.mms.cybr.main.MainCmd> (검색일:2015.04.04.)

43) <http://www.ushmm.org/education/> (검색일:2015.04.01)

44) <http://www1.yadvashem.org/yv/en/education/index.asp> (검색일:2015.04.01)

Materials”이라는 서비스의 세부 항목은 Educational Materials, Ceremonies, Lesson Plans, The Holocaust and the Arts, Educational Guidelines, e-Newsletter, Learning Environments, Featured Books, Echoes & Reflections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Catalog of Educational Materials”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기록물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할 만하다.⁴⁵⁾

넷째, 뉴스레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운영 주체는 뉴스레터를 통해 아카이브에 대한 홍보 및 기관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소식을 즉각 이용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는 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다. 소식지에는 아카이브에 대한 소식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새로운 기록물에 대한 소식과 더불어 아카이브 행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카이브가 독자적으로 소식지를 발송하기 힘든 경우 운영 주체가 발송하는 소식지에 아카이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실적으로 아카이브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경우, 민주주의 아카이브도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나 민주공원 또는 본 아카이브의 운영주체인 민주주의 사회연구소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5·18 기념재단도 재단활동 소식을 통해 2012년 10월 18일 마산 창동사거리에서 개최된 ‘부마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 참관기에 대해 전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기관 자체의 뉴스레터 발송이 힘들다면 성격이 유사한 기관과의 협력 역시 아카이브를 홍보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뉴스레터는 활발한 기록물 기증과 후원회원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지금까지 민주주의 아카이브의 기록물 활성화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본 아카이브는 2012년에 비해 기록물 정리 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었고 컬렉션 목록까지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은 보다 많은 기록물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미흡하여 기록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록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본 아카이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록물 정리 작업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어 기록물에 대한 목록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바탕으로 각 기록물의 유형에 적합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5) <http://www1.yadvashem.org/yv/en/education/index.asp> (검색일:2015.03.01)

46) http://518.org/ease/gallery.es?act=view&bid=0001&list_no=78&mid=a10101000000 (검색일: 2015.04.01)

47) 새로운 아카이브 소식 전달 수단으로 소셜 네트워크가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성모, 『대학 인터넷 홍보 개선방안 연구-홈페이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상호,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5-1(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 김상호, 『기록보존론』 (아세아문화사, 2000)
- 김은실, 『이용자 유형별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문소희, 『역사문화자원 활용 방안 연구-5·18체험관 구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정보 콘텐츠 구축완료보고서』 (2009)
- 박경석, 『5·18 민주화운동 기록의 정보서비스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박수연, 『기록관간의 전거레코드 공동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국가기록원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료관을 중심으로』 (忠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0)
- 양은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관의 이용제공 전략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4)
- 이명곤,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업과 지역문화: 부산민주공원의 조성을 중심으로”, 『황해문화』 42(2004)
- 이용기, “구술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제언”, 『역사비평』 봄호, 통권 58호(2002)
- 정혜순,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료실의 기록관리 운영체제 수립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대학원 기록관리학과, 2009)
- 정호기,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한국에서의 민주화 운동들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차준호, 『역사교육용 기록정보콘텐츠의 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료로 배우는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Gail Farr, Archives & Manuscripts, (SAA, 1980)
- Mary Jo Pugh, 『Providing Reference Service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SAA, 2005)
- Thomas Wilsted William Nilte, 이소연 역, 『기록관 경영』 (2004)

인 터 넷 주 소

5.18 기념재단 아카이브(5.18 기록관) <http://archives.518.org/>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AA: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1046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기념관 <http://www.ushmm.org/>

민주주의 아카이브 http://www.demopark.or.kr/main/sub_archive.asp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http://archives.kdemo.or.kr/>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http://www.jmberlin.de/main/EN/homepage-EN.php/>

이스라엘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 www.yadvashem.org.

작센하우젠 포로수용소 <http://www.stiftung-bg.de/gums/en/index.htm>

중국 난징 대학살 기념관 <http://www.nj1937.org/english/default.asp>

폴란드 아우슈비츠 기념관 <http://en.auschwitz.org/m/>

히로시마 평화기념 자료관 http://www.pcf.city.hiroshima.jp/index_e2.html